

담양교육청, 고3 학생들과 교직원 위한 힐링 환경 캠프 운영

담양군·담양공고·창평고 180여 명의 학생과 교사 참여 난타 축하공연·태권무 공연과 UCDC댄스 공연등 진행

담양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전라남도자연환경연구소와 함께 12년 학업을 마친 고3 학생들과 교직원의 노고를 위로하고, 청소년들의 새로운 시작을 격려하고자 '고3 학생들을 위한 힐링 환경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담양군 청소년수련원 국제관 대강당에서 관내 3개 고등학교(담양고, 담양공고, 창평고) 180여 명의 학생과 교사가 참여한 이번 프로그램은 담양중학교 후배들의 난타 축하공연 '선배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를 시작

으로, 2022년 업무협약을 통해 인연을 맺고 있는 조선대학교 선배들의 '내일을 응원해' 태권무 공연과 UCDC댄스 공연으로 격려를 전하고, 참가한 각 학교 학생들의 끼 자랑 공연으로 흥겹게 진행되었다.

또한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환경 보전 실천의 중심 역할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장차 성인이 될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인성을 지니고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과 충효 특강이 함께 진행됨으로써 프로그램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하였다.

공연에 참가한 창평고 학생은 "수능이 끝난 후 후련한 마음과 아쉬운 마음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후배들의 축하와 선배들의 격려를 받게 되니 기쁘고 뿌듯한 한편, 함께 고생한 친구들과 공연을 즐기는 동안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릴 수 있었다"며 행복한 여운을 남겼다.

이경애 교육장은 "12년 동안의 학업 과정을 무사히 끝마친 학생들에게 쉽의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아 기쁘고, 환경과 충효 교육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담양의 학생들이 자랑스러운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밑거름을 제공해주신 전남자연환경연구소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함평중, 찾아가는 특별한 공연 '음악스케치'



함평중학교는 지난 24일 함평교육지원청 지원으로 클래식앙상블 '메타'의 찾아가는 특별한 공연 '음악스케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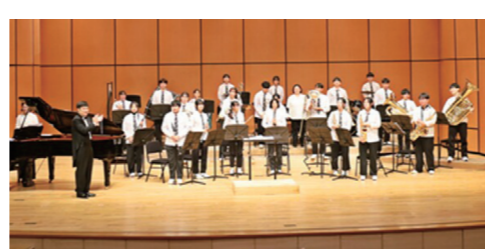
이번 찾아가는 School Concert '음악스케치'는 함평교육지원청에서 청소년들에게 음악적 감성을 키우고 음악을 통해 위로와 휴식을 선물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음악스케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마음의 힐링을 주고자 낮설게 만 느껴졌던 클래식이 친근하고 익숙하게, 즐겁게 느낄만한 곡들로 클래시미썸, 교과서세계명곡메들리, 영화음악&뮤지컬&가요 등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채워졌다.

음악으로 공감하고 위로를 위한 공연은 우정의 노래로 시작하여 피노키오, 꽃의 계절, 오상젤리제, 뮤지컬의 지금 이순간(지킬 앤 하이드 중), 향수 등을 선보여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과 박수갈채를 받았다.

함평=김광춘기자

전남생명과학고, 제3회 탐진 윈드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개최



전남생명과학고는 지난 23일 강진아트홀에서 제3회 탐진 윈드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다.

탐진 윈드 오케스트라는 1983년 밴드부로 활동을 시작하여 지역행사나 오케스트라 참여하며 전통을 이어오고 있었다. 2021학년도 처음으로 탐진 윈드 오케스트라는 이름으로 거듭나며 제1회 정기연주회를 계획하였으나 코로

강진 관내 학교 및 지역민들에 학교의 교육활동 홍보하는데 큰 역할

나로 인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교내행사로 진행되었으나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에는 제3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면서 지역 학교는 물론 강진 관내 학교 및 지역민들에게 학교의 교육활동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방과 후 예술교육으로 진행되는 탐진 윈드 오케스트라는 브라스 밴드로 관악기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이다. 단원들은 3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과후 지도는 모교 밴드출신 박영세 선생님이 후배를 사랑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지도하였다.

본교 오케스트라 지도교사 박선미 선생님은

"마이스터고의 특성상 행사가 많아서 연습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음악을 즐기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여 코로나로 단절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오히려 더 발전시켜 매년 연주회를 열 수 있게 되어 단원들과 매우 행복하다"고 말하였다.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정태원 교장은 "끊임없이 노력하여 정기연주회를 개최한 탐진 오케스트라 단원 여러분들과 열심히 지도해 주신 박선미 담당 선생님, 박영세, 이진영 지도선생님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또한 참여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 전한다." 라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광양동초, 체험중심 어린이 경제교육 실시

광양동초등학교는 지난 24일 전교생 78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 경제교육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어울림 체험! 똑똑한 경제교육의 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전라남도교육청의 지원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합리적인 경제활동 능력 신장을 위해 정해진 금액 안에서 지역 특산품을 구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린이 경제교육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전개했다.

지역경제와 연계하여 찾아오는 체험활동은 학년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채롭게 구성된 프로젝트 학습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예절교육 및 한국화의 이론을 배우고 심장생을 주제로 먹물을 이용하여 합죽선에 그림을 그리는



부채 한국화 그리기 체험, 전통 떡의 유래를 알아보고 직접 떡메를 쳐 인절미를 만들어 보는 체험, 다양한 천연염료를 이용하여 파우치를 염색하는 천연염색 활동을 하는 등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광양=기동취재본부

목포하당중, '우리 학교 보물찾기' 운영

학생 및 교직원의 즐거운 학교생활 위해 마련

목포하당중학교 교육복지실에서는 학생들의 학교적응력을 향상시켜 보다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으로 우리 학교 보물찾기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전교생 및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3 ~ 11월 1일 10일간 교육복지실에서 진행했는데

학교에 보물을 숨겨놓고 찾는 것이 아닌, 우리 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이 생각하는 보물과 그 이유를 작성한 후 교육복지실에서 제출하면 랜덤뽑기를 통해 5가지의 간식 중 하나를

받는건데요. 학생 및 교직원들의 다양한 생각을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어요. 가장 많이 찾은 보물은 친구, 학생, 선생님이었는데, 자기 자신을 보물이라고 이야기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한 보물 중에는 수학(나는 다른 애들과 달리 수학을 좋아한다. 수학시간은 재미있고 시간이 빨리가는 것 같아서 나는 수학이 보물이다.)과 신발장(우리 학교를 다니고 졸업한 모든 자랑스러운 학생들의 발자취가 모여있기



때문)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찾은 보물을 게시판에 정리해서 누구나 지나가며 볼 수 있도록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발한 보물을 찾은 3명의 학생에게는 교육복지실에서 준비한 선물을 주고 시상하였습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